

# 금강권 개발전략의 모색

심 문 보  
(沈文輔)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원



## I. 서 론

### II. 금강권의 개발 현황 분석

### III. 금강권 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 잠재력

### IV.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발전전략

### V. 금강권 개발의 세부추진방향

## VI. 결 론

## I. 서 론

권역이란 공통적, 상호의존적 특성을 가졌거나 또는 광범위한 지역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지칭하

는 것이다. 권역은 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물질적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권역설정의 기준은 주로 동질성과 상호의존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리적 특성, 기후조건, 산업구조, 자원분포, 직업분포 및 고용구조, 도시기반시설, 정주체제, 소비패턴 등이 유사하거나 의존적일 경우, 같은 권역으로 취급한다. 또한 권역설정은 설정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지리적 연계성, 지역특성의 동질성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권 등 지역기능의 특성에 따라 개발권역을 설정한다(서창원, 1994). 기존에 충청남도는 권역설정을 정주체계 분석에 의한 지역생활권과 지역특성에 의한 개발권체계의 설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에서는 수도권 기능의 분담과 지방자치, 대도시권의 확대 등에 부응하고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공간 구조를 5

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구분은 행정구역만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어서 지역이기주의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래지역을 모자이크식으로 개발권역을 설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권역의 구분에서 탈피하여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충남도는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함께 지역특성, 산업구조, 생산자원, 정주체제, 소

비고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경영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4대권 개발경영 구상, 1995). 충청남도의 권역구분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과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5대 권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경영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4대 권역설정 구분이

〈표1〉 충청남도 권역구분 비교

구 분	개 발 권 역 내 용
제2차 도건설 종 합 계 획 개 발 권 역	1. 서북부지역 : 신산업지대 조성(서산, 당진, 아산 지역) 2. 서해안지역 : 관광, 휴양, 위락벨트 조성(가로림만으로 부터 안면도를 거쳐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에 이어지는 해안지역) : 서해안 임해공업벨트 조성(서천 지역) 3. 동남부지역 : 첨단산업 및 내륙도시형 공업벨트 조성(천안, 연기 지역) 4. 서부내륙지역 : 선진농업 중심지대 조성(홍성, 예산, 청양 지역) 5. 동남내륙지역 : 백제문화유적 관광벨트(공주, 부여 지역) : 대전 연계개발 조성(논산, 금산 지역)
4대 권역별 개 발 권 역	1. 북 부 권 : 수도권 기능 분담 및 신산업지대 조성 (천안, 아산, 당진 등 아산만권 배후지역) 2. 서해안권 : 해양관광단지 및 대 중국교역 전진기지 (가로림만, 태안반도, 장항일원 지역) 3. 백 제 권 : 문화, 관광, 위락 복합개발 (백제고도권 등 문화유적 분포지역) 4. 금 강 권 : 치수, 주운, 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논산, 연기, 금산, 서천, 청양, 공주, 부여 등 금강유역)

자료: 충청남도,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1992.

충청남도 4대권 개발경영구상, 1995.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기능이 중첩될 경우 개발권역의 중첩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부권의 일부는 서해안권역에도 속할 수 있으며 백제권의 중심이 되는 공주, 부여는 금강권역에도 속할 수 있다. 아울러 백제문화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논산, 연기의 일부분은 금강권역 또는 백제권역에도 속할 수 있다. 이와같이 4대 권역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개발권역의 중첩허용과 특화기능의 육성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금강권을 굽이쳐 흐르고 있는 금강은 한반도의 서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5대강 중에서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세번째로 큰 강으로 유역연장은 401.4km에 이른다. 금강유역은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뚜렷하며 7~8월의 집중호우 기간에는 금강의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된 금강은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류지들이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면서 서해로 유입되고 있으며(이동령, 1993), 금강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금강권역은 공주, 부여, 금산, 연기, 논산, 청양, 서천 지역이 이 권역에 속한다. 충청도는 이러한 금강권역을 치수, 주운, 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등을 중심으로 특화기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금강권역을 중심으로 충청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99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금산인삼 종합전시관 및 인삼

연구소 설치, 중부권 컨테이너기지 건설, 대둔산 및 서대산 도립공원 개발, 제2 한산모시타운 건설 등이며, 2001년까지 완료사업으로는 금강종합개발, 논산 성동공단 조성, 금강하구연 종합관광 위락단지 조성, 황산유원지 개발 등이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 논산 역세권 개발, 논산 연무 복합터미널 및 종합유통단지, 장항-대전간 2단계 주운개발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금강권역에서 충청도가 추진하거나 계획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강권의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조사 및 각 시·군 통계자료와 현안자료를 중심으로 금강권역의 개발현황을 분석 하였으며, 현지조사는 각 시·군의 지역현안 청취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 II. 금강권의 개발 현황 분석

### 1. 일반현황

#### 1) 면적과 인구현황

금강권은 금강유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써 행정구역으로는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금강

〈표2〉 금강권 면적과 인구현황

(단위: km<sup>2</sup>, 호, 명, 인/km<sup>2</sup>)

구 분	면 적	가 구	인 구	인구밀도
총 남	8,367.65	533,852	1,844,692	220.5
권역계	3,816(45.6)	181,173(33.9)	623,651(33.8)	163.4
공주시	863.85(10.3)	22,811(4.3)	80,504(4.4)	93.2
논산시	554.08(6.6)	43,954(8.2)	150,136(8.1)	271.0
금산군	575.24(6.9)	19,757(3.7)	69,776(3.8)	121.3
연기군	356.91(4.3)	24,234(4.5)	82,455(4.5)	231.0
부여군	364.05(4.4)	31,178(5.8)	106,302(5.80)	170.1
서천군	364.05(4.4)	25,653(4.8)	87,207(4.7)	239.6
청양군	479.59(5.7)	13,586(2.5)	47,271(2.6)	98.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권의 총면적은 약 3,816km<sup>2</sup>에 달하여 충남의 전체 면적중 45.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권역내의 인구는 1995년 1월 현재 총 623,651명으로 충남의 전체인구 중 33.8%에 달하며, km<sup>2</sup>당 163.4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강권역내의 면적과 인구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 2) 인구이동 현황

충남의 주민등록에 의한 총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 보면 전입보다는 전출의 이동률이 1.1% 정도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인구의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금강권의 인구이동에서도 전입보다는 전출의 이동비율이 높아,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감소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 격감과 연관이 있다. 금강권내에서 금산군, 청양군 및 연기군의 인구 유출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공주시와 논산시의 인구유출은 다른 지역 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인접한 대전 대도시권의 영향으로 인구 유출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산업구조 및 재정규모 현황

### 1) 산업구조 현황

금강권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산업이 주도산업이며, 업종의 구성상태를 생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농림수산업의 1차산업 비중이 48%, 광공업의

〈표3〉 인구이동 현황

구 분	전 입		전 출		감 소	
	명	%	명	%	명	%
충 남	214,065	11.6	234,008	12.7	19,943	1.1
권역계	46,850	7.5	68,658	11.0	21,808	3.5
공주시	5,490	0.3	11,816	0.6	6,326	0.3
논산시	12,549	0.7	16,010	0.9	3,461	0.2
금산군	5,336	0.3	8,270	0.4	2,934	0.1
연기군	7,905	0.4	9,571	0.5	1,666	0.1
부여군	6,878	0.4	10,218	0.6	3,340	0.2
서천군	5,635	0.2	8,089	0.6	2,454	0.2
청양군	3,057	0.2	4,684	0.3	1,676	0.1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표4〉 산업구조 현황

(단위: %)

구 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충 남	46	14	40
권역계	48	15	37
공주시	55	12	43
논산시	42	14	44
금산군	38	15	47
연기군	30	23	47
부여군	42	14	44
서천군	69	11	20
청양군	63	17	20

자료: 충청남도, 시군대토론회 자료, 1996.

2차산업 비중이 15%, SOC 및 서비스의 3차산업 비중이 37%로서 충남 평균의 46%, 14%, 40%에 비해 1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

은 반면 2차산업은 비슷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으며, 3차산업은 3%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차산업의 구성내용면에 있어서

〈표5〉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재정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순위
총 남	32,453	23,395	9,040	29.0%	
권역계	7,541	6,155	1,386	22.5%	
공주시	1,475	1,195	280	21.7%	4
논산시	1,208	1,093	115	29.8%	1
금산군	772	706	66	17.1%	6
연기군	1,224	6,923	532	29.1%	2
부여군	1,228	1,033	195	19.1%	5
서천군	845	767	78	25.0%	3
청양군	789	669	120	15.4%	7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는 영세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산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3차산업구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금산 인삼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금강권역의 낙후된 산업구조는 이 지역들이 대부분 금강유역에 위치하여 전통적으로 농업이 잘 발달된 반면 공업부문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 2) 재정규모

충남도의 1995년도 세입기준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3,395억원과 특별회계 9,040억원을 합쳐 32,453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9.0%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금강권역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는 충남의 재정자

립도보다 훨씬 작은 22.5%에 그치고 있어, 금강권역의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금강권역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논산, 연기, 서천, 공주, 부여, 금산, 청양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모두 연기군의 규모가 논산군의 규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논산시와 연기군은 29.8%, 29.1%로 충남의 전체 재정자립도 29.0%보다 높으며 청양군의 경우에는 15.4%로써 금강권역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 3. 공업단지 현황

### 1) 금강권 지방공단 현황

〈표6〉 지방공단 현황

구 분	조성기간 (연도)	면적 (천㎡)	공장용지 (천㎡)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총 남		11,919	9,997	182	182	20,522	10,408
천안1	79-80	359	290	63	64	2,622	1,767
천안 마정	93-95	148	98	34	34	851	
서산 대산	85-93	8,793	7,663	3	3	4,463	3,768
천안 2	89-92	820	567	50	50	6,821	2,984
천안 천흥	90-94	535	323	11	11	2,576	1,017
조치원	86-97	996	869	18	18	2,589	872
연기 소정	93-95	268	187	3	3	600	

자료: 충청남도 공업과, 1996.

1996년 1월 현재 충청도내의 지방공단 현황은 〈표6〉에서 나타나 있듯이, 천안 1공단, 조치원공단, 대산공단, 천안 2공단, 천안 천흥, 연기 소정, 천안 마정 등 7개 단지에 18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10,408명의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조성완료된 지방공단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에 3개 공단, 서산에 1개 공단, 연기에 2개 공단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지역 분포는 충남의 4대 권역중 북부권과 금강권에 지방공단이 편중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금강권에 속하는 연기의 소정공단에는 비금속 광물, 조립금속, 건설용자재 분야의 3개 업체가 조업중에 있으며 조치원 공단의 경우에는 기계, 조립분야 등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 2) 금강권 지방공단 조성계획

현재 충청도에서 조성중인 지방공단은 관창, 금산, 천안 3, 인주 1, 인주 2, 대죽공단 등 6개소가 조성중에 있으며, 조성 준비중인 공단은 조치원 전이석재공단, 연기 월산공단, 아산공단 등 3개소이며, 보령의 웅천공단은 현재 계획중에 있다. 아래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권에서 조성중에 있는 곳은 금산공단이며, 조성 준비중인 공단은 전이 석재공단과 연기 월산공단 등이다. 현재 조성중인 금산공단의 경우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성 준비중인 연기의 월산공단에는 첨단산업 신소재 업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이의 석재단지의 경우에는 금강석재가 16만5천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와같이 타이어

〈표7〉 지방공단 조성계획

구 분	조 성 기 간	면 적 (천㎢)	공장용지 (천㎢)	입주업체		종 업 원 수	추 진 현 황
				계 획	실 적		
충남		14,641	9,303	425	61	99,153	조성중
보령 관창	92-97	2,439	1,289	6	6	13,360	
아산	95-98	1,984	1,089	1	1	14,000	
천안3	92-96	1,563	1,019	100	5	10,440	
아산 인주 1	93-96	1,912	1,426	1	1	5,020	
아산 인주 2	93-96	1,572	927	64	-	23,280	
서산 대죽	91-98	2,088	1,557	120	2	20,000	
금산	92-96	805	662	1	1	1,523	조성중
전의석재	93-96	545	344	45	45	1,003	준비중
연기월산	93-96	1,833	990	87	-	10,527	"

자료: 충청남도 공업과, 1996.

및 기계 건설용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중에 있는 금산공단이 계획대로 조만간에 완공되고 조성 준비중인 월산공단과 석재단지가 완공될 경우 금강권에는 총 130여개에 이르는 업체가 입주하여 1,3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충남 전체의 경우에 현재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 준비중에 있는 지방공단이 예정대로 1998년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425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1만여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토지이용 현황

##### 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금강권의 토지이용은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적 용도의 비중이 매우 낮아 아직도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강권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과 농촌적 토지이용 비율은 2.7%대 89.9%로써 충남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2.8% 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논산시의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이 20.8㎢로 전체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금강권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천군, 연기군이 각각 3.5%, 부여군 2.6%, 청양군 1.8%, 금산군 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도시적



〈표8〉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km<sup>2</sup>, %)

지 역	총면적	도시적 토지이용				농촌적 토지이용						기타
		소계	대지 주택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소계	도로 철도	농경지		임야	과수원 목 장	
								전	답			
충남	8,367.7	232.0 (2.8)	186.5	30.2	15.3	7450.8 (89.0)	175.1	870.1	1,769.6	4565.2	70.8	684.9 (8.2)
권역계	3,818.6	93.7 (2.5)	79.2	8.4	6.1	3434.4 (89.9)	74.3	330.9	748	2,268.2	13.0	290.5 (7.6)
공주시	863.9	14.2 (1.6)	12.6	0.7	0.9	801.5 (92.8)	12.2	58	112.3	617	2.0	48.2 (5.6)
논산시	554.1	20.8 (3.8)	18.0	1.3	1.5	481.4 (86.9)	15.8	59.2	159.1	244.1	3.2	51.9 (9.4)
금산군	575.2	8.8 (1.5)	7.4	0.7	0.7	538.3 (93.6)	7.9	54.3	63.2	411.9	1.0	28.1 (4.9)
연기군	356.9	12.4 (3.5)	8.7	3.1	0.6	309.6 (86.7)	7.4	35.9	66.6	196.4	3.3	34.9 (9.8)
부여군	624.9	16.2 (2.6)	14.2	0.9	1.1	546.0 (87.4)	12.2	50.4	156.7	325.1	1.6	62.7 (10.0)
서천군	364	12.8 (3.5)	10.8	1.2	0.8	310.1 (85.2)	10.0	35.0	113	151.6	0.5	41.1 (11.3)
청양군	479.6	8.5 (1.8)	7.5	0.5	0.5	447.5 (93.3)	8.8	38.1	77.1	322.1	1.4	23.6 (4.9)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토지이용 비율보다 연기, 논산, 서천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지역보다 공장용지의 비율이 약간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시적 토지이용이 주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공장 및 학교용지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양상으로서 그동안 도시성장이 크게 정체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도시계획 현황

충남의 용도별 토지이용은 녹지(71.5%), 주거(12.6%), 공업(5.8%), 상업(1.6%), 기타(0.5%) 순으로 전체적으로 녹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도시계획 면적 중에서 금강권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75.01 km<sup>2</sup>로 전체 비율의 27.7%이며, 충남 전체의 용도지역중 금강권역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면적 비율은 각각 12.6%, 1.9%, 7.7%, 66.2%이다. 금강권역 내에서 용도상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청양군이 20.3%로 가장 높고, 상업지역의 비율은 금산군이 2.3%, 공업지역의 비율은 서천군이 34.9%, 농업지역 비율에 있어서는 논산시가 80.9%로 금강권역 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서천군에 있어

서는 녹지(44.8%), 공업(34.9%), 주거(16.5%), 상업(3.9%) 순으로서 공업지역의 비율이 주거나 상업지역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15,537천km<sup>2</sup>에 이르는 군·장국가공단의 조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기군의 경우에 녹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비율 순으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현재 조성완료된 조치원공단, 연기 소정공단 및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중인 공단면적이 전체 도시계획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산군은 공업지역(0.8%)보다 상업지역(2.3%)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금산인삼이라는 특수한 상권을

〈표9〉 도시계획 현황

(단위: km<sup>2</sup>)

구 분	계 획 면 적	용 도 지 역									
		주 거	%	상 업	%	공 업	%	녹 지	%	기 타	%
충 남	632.39	79.80	12.6	10.27	1.6	36.57	5.8	451.86	71.5	53.89	8.5
권역계	175.01	22.07	12.6	3.30	1.9	13.5	7.7	115.85	66.2		
공주시	22.27	0.77	3.5	0.09	0.4	0.15	0.7	0.97	4.4		
논산시	39.16	6.28	16.0	0.66	1.7	0.55	1.4	31.67	80.9		
금산군	15.89	3.14	19.8	0.37	2.3	0.13	0.8	12.25	77.1		
연기군	14.99	2.39	15.9	0.26	1.7	0.42	2.8	11.92	79.5		
부여군	44.21	2.95	6.7	0.54	1.2	0.29	0.7	40.43	91.4		
서천군	33.26	5.48	16.5	1.29	3.9	11.60	34.9	14.89	44.8		
청양군	5.23	1.06	20.3	0.09	1.7	0.36	6.9	3.72	71.1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표10〉 도시계획지표

(단위: %)

지	표	충남	권역계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주	택 보 급 률	92.5	96.3	94.8	100.4	100.6	87.8	94.4	96.4	99.7
상	수 도 보 급 률	42.1	35.4	40.2	42.3	34.5	41.3	38.8	32.6	17.8
하	수 도 보 급 률	35.9	28.1	31.1	26.7	33.5	36.4	20.0	31.6	17.7
도	로 포 장 률	76.1	76.9	71.4	82.2	67.9	78.1	79.8	78.1	81.1
새	활보호대상자율	7.2	11.3	12.4	9.2	15.0	7.4	11.5	13.2	13.4
경	지 정 리 율	49.4	47.7	36.7	66.3	31.3	43.3	54.1	61.1	41.3
수	리 안 전 답 률	78.8	80.4	84.4	85.6	89.9	67.0	77.3	77.7	80.6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1995.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도시계획지표

도시계획 지표중 금강권역의 주택보급률, 도로포장률, 수리안접답률은 충남의 평균비율 보다 높고 상·하수도 보급률, 경지정리률,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등에 있어서는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강권역에서 도시계획 지표중 상·하수도 보급 및 경지정리율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적어도 금강권의 경제기반 구축 단계인 1998년 까지는 충남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권역내에서 주택보급률은 연기군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가장 높게 나타난 논산시(42.3%)와 가장 낮은 청양군(17.8%)의 차이가 무려 24.5%를 보여주고 있어 금강권역내에서도 지역간의 격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경지정리율에 있어서는 금산군(31.3%)이, 수리안접답률에 있어서는 연기군(67.0%)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5. 환경기초시설의 투자사업비 현황

지금까지 시행해 온 권역별 개발 방식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환경보전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을 접하고 있는 금강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금강의 수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충남도에서

〈표11〉 환경투자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

사 업 명	설 치 수	시설규모(㎡)	총사업비	기투자비	추후사업비
총 계	84		7,394	3,126(42.3)	4,268(57.7)
축 산 공 동 처 리 장	1,084	1,930	574(7.8)	488(85.0)	86(15.0)
분 뇨 처 리 장	10	1,132	329(4.4)	324(98.5)	5(1.5)
농공단지폐수처리장	11	8,440	82(1.1)	82(100.0)	-
오염하천 정화 사업	6		84(1.1)	84(100.0)	-
하 수 종 말 처 리 장	30	724,000	5,143(69.6)	1,586(30.8)	3,557(69.2)
쓰레기위생매립장	15		860(11.6)	399(46.4)	461(53.6)
소 각 로 설 치	2		322(4.4)	163(50.6)	159(49.4)

자료: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996.

환경 기초시설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의 현황은 〈표11〉과 같다. 전체 환경투자사업비 중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전액 투자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투자비율은 50.6%에 그쳐, 충남도의 하수처리 사업비 투자비율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현재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 2개소(천안, 서산)에 28억원, 축산폐수처리장 9개소(공주, 논산, 부여, 연기, 청양, 아산, 예산, 천안, 보령)에 92억원, 쓰레기 매립장 7개소(공주, 논산, 부여, 서천, 보령, 홍성, 당

진)에 157억원, 소각로 설치 32기(소형소각로 시·군당 2기 및 천안, 홍성에 대형소각로 건설)에 59억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도가 금강권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주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분뇨처리장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이며 축산폐수처리장에 있어서는 청양이, 쓰레기매립장 구성에 있어서는 논산과 서천이 신규로 건설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안을 찾아 볼 수 없다.

## 6. 지역 현안사업 현황

현재 금강권역의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 및 숙원사업들을 아래 〈표12〉와 같이 공공시설, 농업기반, 지역경제,

〈표12〉 지역 현안사업의 분류기준

구 분	분 야
공 공 시 설	- 청사신축, 공설운동장 건립, 공원묘지 조성
농 업 기 반 시 설	- 농촌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배수개설 사업 - 영농기계화 및 위탁영농 회사 확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육성 - 문화마을 조성 사업
지 역 경 제	-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정비사업 - 후양림조성사업
도 시 기 반 시 설	- 도시계획도로 국·군·농어촌 개설 및 확포장 사업 - 순환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하천정비 복개 및 교량건설 사업 - 각종 대단위 건설 사업
환 경 기 초 시 설	-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분뇨처리장 설치, -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 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지 역 개 발	- 정주생활권 사업, 소도읍 개발, 오지 종합개발 사업
사 회 복 지	- 복지회관 건립, 요양기능시설 보강
문 화 체 육 관 광	- 문화재 복원 및 발굴·정비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기획실 현안자료, 1996.

도시기반, 환경시설, 지역개발,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등과 같이 8개 분야로 분류하여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의 건수와 예산투자액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금강권역의 전체 현안사업건수와 예산투자액의 비율은 〈표13〉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분야가 전체 사업건수의 47.3%, 예산투자면에 있어서는 전체의 48.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분야(29.4%), 지역경제분야(12.3%) 순으로 예산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금강권역이 경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를 육성하려고 하

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금강권역의 각 시·군 현안사업을 해당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주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3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중 도시기반 시설분야가 11건으로 전체의 35.5%,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사업건수는 12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81.7%로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 비율 8.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것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건수에 비해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작다는 것과, 문화관광 지역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하여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논산시는 전체 39개 사업중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19개로 48.7%, 환경 및 문화관광 분야가 각각 5건으로 12.8%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30.0%),

환경기초시설(17.0%), 농업기반시설(16.3%), 문화관광(15.2%)분야 순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은 전체 22개 현안사업중 도시기반시설에 17건, 문화관광분에 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투자면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의 49.9%로 도시기반시설 분야의 46.7%보다 높게 나타나 금산군이 지역경제

〈표13〉 지역현안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권역계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공시설	14,860 (1.1)		3,560 (6.9)		10,300 (1.5)		1,000 (3.0)	
농업기반	52,111 (3.9)	3,370 (2.7)	8,381 (16.3)		17,322 (2.5)		1,500 (4.5)	21,538 (46.2)
지역경제	164,100 (12.3)		5,000 (9.7)	300 (0.9)	154,300 (22.2)		4,500 (13.5)	
도시기반	644,102 (48.4)	103,074 (81.7)	15,444 (30.0)	15,230 (46.7)	479,036 (68.9)	8,435 (2.3)	15,038 (45.0)	7,845 (16.8)
환경시설	62,366 (4.7)	6,194 (4.9)	8,747 (17.0)	820 (2.5)	30,500 (4.4)		1,580 (4.7)	14,525 (31.2)
지역개발	8,830 (0.7)	3,481 (2.8)	1,839 (3.6)				2,452 (7.3)	1,058 (2.3)
사회복지	7,597 (0.6)		700 (1.4)		3,645 (0.5)		2,185 (6.5)	1,067 (2.3)
문화관광	390,770 (29.4)	10,085 (8.0)	7,799 (15.2)	16,292 (49.9)		305,780 (97.7)	5,154 (15.4)	550 (1.2)
합 계	1,344,626	126,204	51,470	32,642	695,103	359,215	33,409	46,583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기획실 자료, 1996.

를 활성화 하기 위해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연기군은 전체 22개 사업중 도시기반시설 8건, 농업기반시설 5건, 사회복지분야 4건, 지역경제분야 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 분야가 전체의 68.9% 및 22.2%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지역에 비해 연기군은 월산 공업단지, 전의 석재단지, 연기공단 등을 조성하여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부여군은 14건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중 도시기반시설 12건과 문화관광 분야 2건에 집중되고 있다. 사업예산의 투자면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의 97.7%를 차지해 같은 백제문화 유적지인 공주시 보다 부여군은 문화관광 산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천군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산 투자면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전체의 45.0%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관광 15.4%, 지역경제 13.5%, 지역개발 7.3%, 사회복지 6.5%, 환경 4.7%, 농업기반시설 4.5%, 공공시설(3.0%) 등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현안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관광 분야 이외에도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도 중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양군은 22건의 현안사업중 농업기반시설 6건, 환경시설 5건, 도시기반시설 4건 등

에 현안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 투자면에 있어서 농업기반 시설이 전체의 46.2%, 환경분야 31.2%, 도시기반시설 분야 16.8% 등으로 나타나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Ⅲ. 금강권 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 잠재력

#### 1. 금강권 개발의 저해요인

앞의 제Ⅱ장의 금강권의 개발현황 분석과 해당 시·군의 건설종합계획 및 충남도가 금강권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여 금강권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해요인 및 개발의 한계점을 열거하면 ①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교통망 시설의 취약성, ②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 현상, ③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④열악한 재정자립도, ⑤과다한 각종 개발제한규제로 인한 도시계획 가용면적의 부족과 지방 공업단지의 부족, ⑥교통 및 경제적 중심점의 상실, ⑦환경보전 대책의 미흡, ⑧권역내의 인접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 미흡, ⑨사회복지 시설의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금강권역내의 해당 시·군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의 저해요인을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금강권내의 각 시·군별 개발의 저해요인

구 분	내 용
공 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li> <li>-2차산업 생산기반 취약</li> <li>-도시계획구역의 협소 및 용도지역상 상업 및 공업지역 협소</li> <li>-도로시설 미비</li> <li>-백제문화 유적보전 및 관광자원화 미흡</li> </ul>
논 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습 침수도시로서 하계 강우시 피해 막대함</li> <li>-사회, 경제적으로 대전 대도시권에 종속되어 있음</li> <li>-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침체</li> <li>-공장입지 금지지역의 과다로 지역발전 저해됨</li> </ul>
금 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의 오지로서 도로망의 미비로 공간통합의 곤란</li> <li>-인접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함</li> <li>-인구감소로 인한 군세의 악화 및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li> <li>-외부 의존성향이 강한 소비경제 구조</li> <li>-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개발 및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미비</li> <li>-환경보존대책 결여</li> </ul>
연 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지역에 대한 응집력 및 도시서비스 기능 미흡</li> <li>-교통 및 경제적 구심점의 상실</li> <li>-인접지역으로의 인구유출 현상 심각함</li> <li>-군부대 및 그린벨트의 과다로 개발의 제한</li> <li>-부존자원의 부족</li> </ul>
부 여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수시 상습 피해지역임</li> <li>-문화 유적 지역으로서 타지역에 비해 개발에 제한됨</li> <li>-인구감소와 이농현상 심함</li> <li>-1차산업의 비중이 높음</li> <li>-3차산업의 개발 유도 및 2차산업의 성장억제 정책으로 산업구조 취약함</li> </ul>
서 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발전의 둔화</li> <li>-장항 국가공단의 간척사업으로 수산업의 침체</li> <li>-지역주민 소득 및 문화수준 낙후</li> <li>-인접 군산시의 영향으로 서천읍의 중심기능 상실</li> </ul>
청 양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역경제 침체</li> <li>-이농현상 지속으로 인구감소 및 노령화</li> <li>-인접 시·군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인접 시·군에 분산</li> <li>-상·하수도,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부족</li> </ul>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기획실 현안자료, 1996.



〈표 15〉 금강권역의 시·군별 개발 잠재력

구 분	내 용
공 주 시	— 풍부한 문화유적으로 문화관광산업 유치에 유리 —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 및 온천개발의 잠재력 보유
논 산 시	— 3군본부와 인접하여 방위산업 육성이 용이 — 교통, 공업용수, 지가의 안정 등으로 공업입지 조건이 양호 —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특화작물이 잘 발달
금 산 군	— 서대산, 대둔산, 금강 등 수려한 청정개발자원이 풍부 — 지역특산물인 인삼판매와 연계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음
연 기 군	— 교통이 편리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산업입지 조건에 적합함 — 도시근교 특화작물이 잘 발달
부 여 군	— 사적지의 복원정비와 문화유적지의 풍부로 문화관광산업의 유치에 유리 — 대도시의 근교농업 및 화훼 과수 재배에 유리함
서 천 군	— 충남 서남부 신산업지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음 — 중국 등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부각 — 서해안 및 금강하구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 형성
청 양 군	— 특화작물 및 특산품이 발달되어 있음 — 도립공원 칠갑산이 소재하여 경관이 수려하여 관광 및 레저산업의 적지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 건설종합계획 및 기획실 현안 사업자료, 1996.

## 2. 금강권 개발의 잠재력

금강권역이 갖고 있는 개발잠재력은 도로망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공간통합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도시근교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주변에 풍부한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 여가지대를 조성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내륙지역의 용수공급원인 금강의 치수사업으로 연변 관광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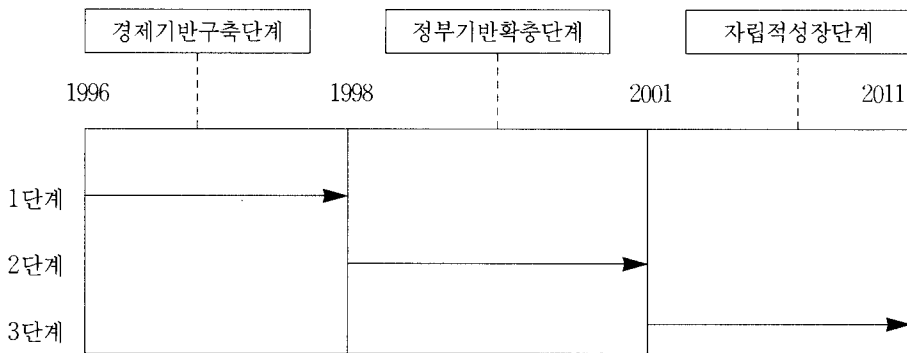
그 배후의 특화단지 조성으로 금강유역 종합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강과 연결하고 있어 용수공급이 다른 권역에 비해 원활하여 내륙공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와같은 금강권의 개발 잠재력 이외에 각 시·군이 갖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살펴 보면 〈표 15〉와 같다.

## Ⅳ.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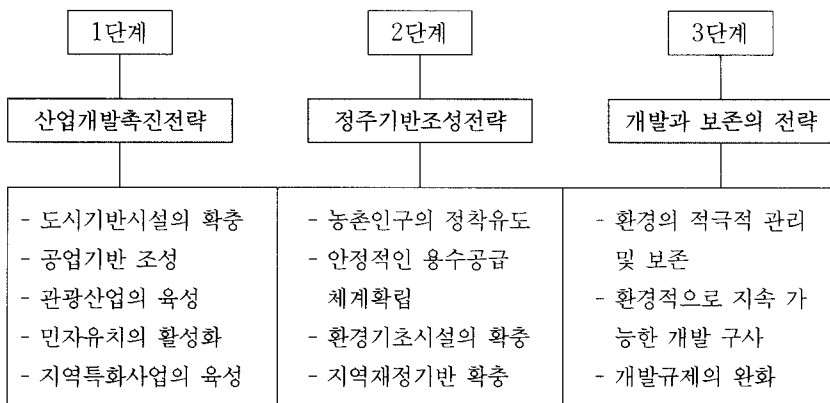
금강권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개발의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발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의 모색에 따라 금강권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현안사업 및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시기별 구분에 따라 1단계는 경제기반구축단계(1996-1998년), 2단계는 정주기반확충단계(1998-

2001년), 3단계는 자립적성장단계(2001-2011)로 발전단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보면 제1단계에서는 산업개발을 촉진하고, 제2단계에서는 정주기반을 조성하며, 제3단계에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전략을 구사하여 금강권역의 개발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단



〈그림1〉 시기별 발전단계



〈그림2〉 단계별 발전전략

계별 발전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 1. 민자유치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압박을 해소하거나 민간이 보유한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배종득, 1995). 금강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금강권 주운개발 및 논산의 농축산 집·배송단지 조성, 금산 서대산의 레저산업 개발 등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 경영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들이 활성화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알고 타당성 검토와 수익성 분석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들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는 충고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2.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개발은 오늘날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은 지

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금강주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관광공간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역 특화사업의 육성

지역 특화사업은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일정 규모의 정주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특화 사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내재하고 있거나, 그 지역의 제반 여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한다(임양빈, 1995). 현재 금강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는 금산의 인삼관광지(개삼터) 개발사업, 공주의 메밀가공제품 기술개발, 부여의 곤충박물관 건립, 논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청양의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화 개발 등이 이 사업의 범주에 속한다. 이와같은 지역적 특화사업을 통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한 분야를 전문화 하거나 차별화 할 수 있다.

#### 4. 농촌인구의 정착 유도

충남도의 인구는 앞의 <표3>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충남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강권역 또한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와같이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농촌 인구의 유출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농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 및 기초적 복지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업단지의 활성화와 단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통하여 인구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 5.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확립

금강권역은 대청댐 및 금강의 영향으로 다른 권역에 비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 문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인구의 도시화 추세화와 생활용수의 증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용수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용수의 부족현상은 지역개발의 지연과 생활여건의 상대적 약화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강권역전체의 용수공급 체계 및 광역 상수원 계획을 수립하여 금강권역의 개

발이나 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거나 개별 상수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 6.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금강은 인접지역의 공장이나 생활폐수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능력이 상실되어 인위적이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강의 최상류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3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는 인근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데서 기인되고 있다. 실제로 금강권역의 하수처리율은 35.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상태이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생활하수 발생량이 1일 48만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처리용량은 30만톤에 불과하여 총발생량 중의 37%인 18만톤이 금강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상태이다(이정주, 1995). 대전시와 같은 금강유역의 자치단체들은 금강에 생활폐수 및 공장폐수의 일부는 정화하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금강유역의 공단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오염물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발생한 오염물을 반드시 처리하여 하천에 부하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염물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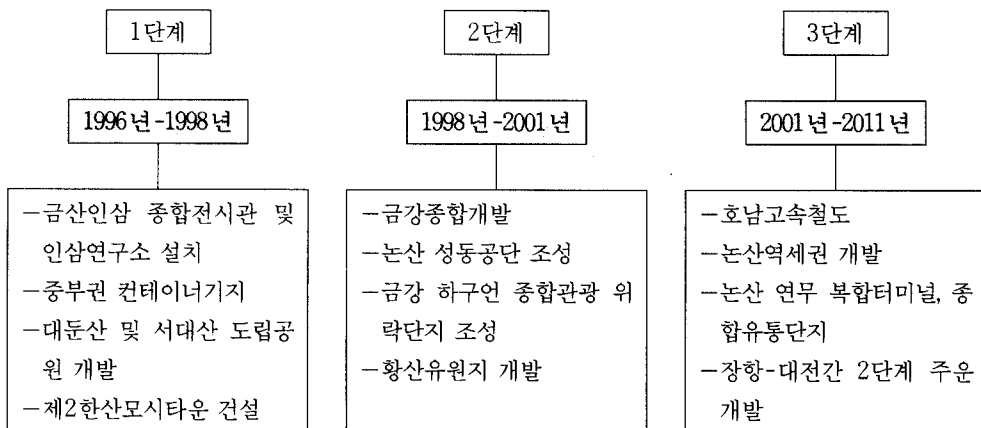
## 7. 친환경적 지역개발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지도자들이 개발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산을 절개하는 행위나 금강의 지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친환경적 개발철학은 금강권역의 개발전략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모든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주체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시키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겸

비하고 있어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8. 각종 개발규제의 완화

금강권은 다른 권역에 비하여 1차산업의 구성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빈약 할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구역 및 농촌진흥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국유림지역, 보안림지역, 임업진흥 촉진지구, 조수보호구역,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다. 논산군의 경우 총면적 554.8㎢중 공장입지 금지구역이 231.43㎢(41.8%)이며 기존시설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73.80㎢(13.3%)로 전체면적의 55.1%가 공장입지



〈그림3〉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추진사업

금지 및 불가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와같이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V. 금강권 개발의 세부추진방향

금강권 개발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의해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설정 할 수 있다. 현재 충청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권 개발의 주요 추진 사업들은 아래 <그림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01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단계별 추진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인삼과 같은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여 안정된 소득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둔산과 서대산의 도립공원 개발, 황산유원지, 금강하구원 종합개발 및 주운개발 등의 관광산업을 통하여 부존자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공단조성, 컨테이너 기지건설, 역세권 개발과 같은 대단위 사업으로 산업기반 및 정주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권 개발을 위해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 <표16>과 같다. 공주시에서 추진하려 하는 대단위 개발 사업으로는 메밀을 지역의 전통적인 전통 특산 농산물로 개발하여 곰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편의 제공과 행정배려로 건전한 장례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의예식장을 운영하려 계획중이다. 또한 공주 강북지역의 주거지역 확산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생활 용수의 공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강북지역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논산시는 성동 광석 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 계획중에 있으며 도시근교농업에 유리한 작목개발과 과수, 시설채소 등 지역성장 작목을 집중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근교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논산지역내의 관광 자원과 타도시 관광자원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국민관광단지 조성 및 종합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계획중이다.

연기군은 월산 공업단지, 전의 석재공업단지 조성, 조치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등을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면 명학리 일대에 컨테이너 기지를 유치함에 따라 주변 지역을 연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기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지방도 519호선)를 국도로 승격하여 4-6차선을 확·포장하여 수출입 물량운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내통에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컨테이너기지과 물류유통단지를 연계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의 발상지인 개삼터를 인삼관광단지로 종합개발하기 위해 추진중

에 있으며, 대전권 관광지와 병행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둔산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서대산 일원을 레저 관광단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

부여군은 농산물의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려 계획중에 있으며 부여 나성 동문지와 성흥산성 남문지를 복원하여 부여 이미지를 부각하고 백제문화를 선양하려 하고 있다.

서천군은 장·군산업기지 개발 등 서해안 개발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배후지역 유입인구의 관광위락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강하구둑 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의 협소한 공용터미날을 이전 확장하기 위해 서천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날

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그리고 임해공업단지의 입지 및 공업발전과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장항항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개발하려 추진중에 있다.

청양군은 금강변 4개면 지역의 농경지 및 주택이 하상보다 낮게 위치되어 범람할 경우 금강변 일원의 침수가 우려되어 금강변 지역의 농경지 및 주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의 뚝을 높이는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며,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산 정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따라서 충청도와 각 시·군이 금강권역에서 위와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시기적 구분의 적절성 및 사업 추진시 투자의 우선순

〈표16〉 시·군별 금강권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공 주 시	- 곶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 장의 예식장 운영 - 강북지역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추진
논 산 시	- 도시근교 농업단지 조성, 국민관광단지 조성 - 종합관광센터 설치운영, 성동 광석지구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금 산 군	- 개삼터 인삼관광단지 종합개발, 대둔산 골프장 건설
연 기 군	- 내통에 물류유통단지 건설, 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망 확충 -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건설
부 여 군	- 농산물공판장 설치, 나성 동문지와 성흥산업 남문지 복원사업
서 천 군	- 금강하구둑 관광지 조성사업, 공용터미날 이전 확장 - 장항항 민자유치사업 개발
청 양 군	- 금강제방 고상(高上)공사, 정산 정기시장 현대화 추진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과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자료, 1996.

〈표17〉 시·군별 개발전략 및 추진 방향

구 분	내 용
공 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및 관광기반의 강화</li> <li>- 도시기능의 확대에 대비한 지역 공간구조의 재편성</li> <li>- 지역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li> <li>- 장래 공간구조변화에 대응한 종합교통망체제 구축</li> </ul>
논 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li> <li>-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정책의 적극 추진</li> <li>-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li> <li>- 지역간 교류망의 체계적 구축</li> <li>- 장기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개발</li> <li>- 복합관광 도시화 추진</li> <li>- 기술연구 중심의 고등교육기관 신설과 지역산업 연구단지와의 연계강화</li> </ul>
금 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li> <li>- 1차산업 위주에서 탈피, 지역산업구조의 다기능적 전환·유치로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li> <li>- 도로망의 정비 및 확충으로 통합적 교통체계망 확립</li> <li>- 주변 경제권과의 유기적 연결기능 강화로 지역성장력 확보</li> <li>- 지역 정주체계에 따른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정비</li> <li>-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한 특화산업기능 중점 개발</li> <li>- 금산인삼타운의 건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li> <li>- 장기적 용수공급 체계의 확보</li> <li>- 부존자원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연 기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발적 공장입지를 체계적이고 선별적으로 집단화하여 지역환경 보전</li> <li>-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해 첨단산업 및 무공해 식품산업 중점 육성</li> <li>-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대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li> <li>- 조치원읍의 도시경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도심기능을 강화하며 인접 농촌지역과 연결도로망을 정비·확충</li> <li>-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교육, 의료 등의 생활 및 복지환경시설의 확충</li> <li>- 지역주민 및 대도시의 주말 휴양관광객을 위한 관광농원 개발 추진</li> </ul>



구 분	내 용
부 여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지역발전 기반구축</li> <li>- 지역산업구조의 다기능적인 전환·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li> <li>- 생활권내 연결체계의 정비·확충으로 통합적 연결체계의 확립</li> <li>- 주변 경제권과의 유기적 연계기능의 강화로 지역성장력 확보</li> <li>- 생활권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정비로 지역주민의 기본수요 충족</li> <li>-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역특화산업의 증점개발</li> <li>- 단계별 개발촉진 설정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유도</li> <li>- 군내의 관광자원과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광루트화 모색</li> </ul>
서 천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항국가공단 배후도시 육성 및 지역생활권 체계강화로 중심기능 강화</li> <li>- 공단조성 및 배후 신도시 건설로 사회적 유입 인구의 정착유도 및 산업 구조의 개편</li> <li>- 지역 소득증대 방안 모색</li> <li>- 산업유통 및 관광산업 수요증대에 대비한 지원시설 확충</li> <li>- 거점시설의 확충 및 지역연계 교통망 정비</li> </ul>
청 양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소득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li> <li>- 농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공업기반 구축</li> <li>-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다각화</li> <li>- 인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생활환경 개선</li> <li>- 합리적인 자원개발과 환경보존</li> <li>- 교통망의 정비확충</li> </ul>

자료: 충청남도 해당 시·군의 건설종합계획 및 보고서, 1996.

위 등을 결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 금강권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충남도는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지리적인 연계성에

따라 시·군을 특화사업 벨트로 묶어 공동개발할 필요가 있다<그림4 참조>. 이에따라 공주, 부여를 내륙관광산업 벨트로 조성하여 전국 및 대전 대도시권 지역을 위한 역사문화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논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농·축·공 집배송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기의 경우는 교통의 편리성과 수도권으로 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금산과 청양의 경우는 지역특산물 개발 및 대전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근교 스포츠 레저관광사업과 산악형 관광지를

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천은 전국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해안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권은 주운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4〉 금강권 주요개발사업 추진방향

서천-공주-부여간 백제문화 유적지와 연계된 주운개발로 관광 유람선을 운항하며 태안해상국립공원, 안면도, 삽교호, 아산호 등 서해안과 연계한 관광유람선을 운항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권의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전략 및 사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표17>과 같다.

## Ⅶ. 결 론

금강권 개발의 전체적인 여건과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금강권역에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가 부재하다는 것과 지역간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금강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주-논산-부여를 중심축으로 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권의 지역개발과 발전을 수립하는데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의 제한 요인을 극복하고 각 시·군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시·군의 기업가 및 지역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강권역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주운, 유통, 도시근교농업, 특산물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그 지역에 맞는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청양은 주운 관광 산업지대로 연기-논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유통 및 집·배송 단지로 조성하고, 금산-서천은 도시근교 농업과 특화작물 및 레저휴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을 연계·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같은 단지로 형성된 연계 시·군의 상호 보완기능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금강권역 전체를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금강권의 연계 도시간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체계의 구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5.
- 국토개발연구원, 광역개발계획 수립지침 연구, 1994.
- , 국가발전과 지역균형, 1989.
- , 국토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3.
- , 대도시권의 설정과 기능정립 방안, 1985.
-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제1권, 1992.
- 공주시, 공주권 종합개발계획, 1994.
- 금산군, 금산군 건설종합개발계획, 1992.
- 논산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전략, 1995.
- 배종득 외, 민자유치론, 서울: 박영사, 1995.
- 부여군, 부여군 건설종합계획, 1995.
- 서천군, 서천군 건설종합계획, 1994.
- 어명근 외, “지역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 연기군, 제1차 건설종합계획, 1992.
- 이동령, “금강의 자연환경,” 금강지(상), 충청남도, 1993.
- 이정주, “금강권역의 환경보전 대책,” 대전일보창간 심포지엄 자료, 1995.
- 임양빈, “지방화 시대의 충남지역 발전전략,” 열린충남, 창간호, 충남발전연구원, 1995.
- 청양군, 청양군 건설종합계획, 1994. 2.
- 충청남도,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1989.
- , 충청남도 서해안 종합개발계획, 1988. 1.
- ,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1992.
- , 경영행정 기본계획, 1995.
- , 지역경제 6개년 계획, 1996.
- , 4대권 개발경영 구상, 1995.
- , 2000년대 충남의 발전비전 워크숍 발제논문, 1995.
- , 충청남도 장기용수 공급계획, 1993. 12.
- , 지방자치를 통한 충남지역 개발촉진 방안, 1992.
- , 시·군 대토론회 자료, 1996.
- , 각 시·군 기획실 현안자료, 1996.
- , 각 시·군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 자료, 1996.
- , 각 시·군 통계연보, 1995.